

세계 최초 니켈 개발펀드 출시

하나UBS, 암바토비 광산 개발사업 투자 ... 매장량 1억2500만톤

세계 최초 광물투자 펀드인 니켈개발펀드가 12월 국내에서 정식 출시된다.

11월27일 하나UBS자산운용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니켈개발 1호펀드를 출시하고 12월 12-14일 공모를 거쳐 12월18일 총 2600억원을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판매는 굿모닝신한증권과 대신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이 담당한다.

니켈펀드는 광업진흥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의 매출액 중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투자하는 것으로 니켈가격과 환율, 생산량에 연동해 투자수익이 결정된다.

투자 대상인 암바토비 니켈광산은 세계 4대 메이저 광산 중 하나로 추정 매장량은 1억2500만톤에 이른다.

펀드는 만기 11년에 9년 반 이후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대신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환금성이 보장된다.

펀드 기대 수익률은 약 6.5-16.6% 수준으로 수익과 위험 수준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 차이를 고려해 안정 투자형과 수익 추구형으로 나뉘어 출시된다.

아울러 투자 규모 3억원 미만이면 2008년까지 비과세 대상이 되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로 분리 과세되는 등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하나UBS운용 관계자는 “중국, 인디아 등 신흥국가들의 산업화·도시화로 산업자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니켈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또 경제 블록 재편과 세계 경제 자유화 추세도 니켈시장에 기회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판매사인 대신증권 관계자는 “수익률 결정 요인 중 니켈가격과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사전 헤지를 통해 전 투자기간 동안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또 생산량도 전문기관을 통해 수차례 검증을 받아 관련 리스크를 상당히 경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27>